

삼기에너지솔루션즈, 삼기아메리카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53% 성장

▶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046 억 원, 영업이익 85 억 원

▶ 미국 내 현지화 영향으로 점진적 매출 확대

<2025-11-17> 삼기에너지솔루션즈(419050)가 13일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액 1,046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8.1%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

이번 3분기 실적 개선의 핵심은 미국 현지법인 삼기아메리카의 급성장에 있다. 삼기아메리카는 3분기 4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사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삼기아메리카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로부터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2026년 10월부터 2033년까지 총 8년간 미화 2억1155만7000달러(원화 3,000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을 수주했다. 완성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본사의 별도 실적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 별도 매출액 611억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이는 올해 4월과 6월 LG에너지솔루션과 체결한 ESS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케이블 및 FFC(Flexible Flat Cable) 공급 계약에 따른 매출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주력 제품인 기구부품 매출도 함께 성장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삼기에너지솔루션즈 관계자는 "미국 현지법인 삼기아메리카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와 함께 국내 ESS용 BMS 케이블 매출 시작으로 양 사업부문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며 "미국 현지법인 성장과 함께 국내에서도 ESS 및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